

## 2009년 광주에서 『光 엑스포』 개최

오는 2009년 광주에서 광산업 도시의 위상을 널리 알릴 「광 엑스포」가 개최된다.

광주광역시시는 최근 국무조정실 국제행사위원회에 광 엑스포 개최 승인을 요청한 결과 최근 원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「광 엑스포 2009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광주광역시시는 광기술과 광산업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광도시로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광 EXPO 개최를 통해 광주가 국제광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.

미래사회에서 인류의 생활양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광산업은 막대한 시장규모와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신 지식기반 산업이다.

특히 광주는 국토 서남권의 발전을 견인해 가는 거점 도시로서 광산업을 21세기 미래형 산업으로 특화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광산업 육성 2단계사업 추진과 첨단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형성 및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최초 광가입자망(FTTH)상용화사업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2008년에는 광산업 육성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된다.

이에 광주시는 이듬해인 2009년에 광 엑스포 행사를 개

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.

광 엑스포는 「빛, 인류의 미래」라는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상무시민공원 등 10만평 규모로 9월부터 10월까지 60일간 개최되며 50개국 참가와 100만명 관람을 목표로 추진된다.

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며 △광산업전시회 △광기술 컨퍼런스 및 학술대회 △발광다이오드(LED) 디자인 콘테스트 △세계불꽃대회 △민속축제 △문화공연 등이 분행사 및 부대행사로 치러진다.

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“광 엑스포 개최를 통해 광주가 아시아 최대의 광산업클러스터로 정착하는데 큰 기틀을 마련하고 국내외 광산업체의 광주광산업클러스터로의 투자 및 이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세계 각국의 최첨단 광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장이 될 광 EXPO2009 광주개최는 직간접 투자효과는 물론, 신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및 국내 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광주시는 앞으로 광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.